

# 추가시간 통한의 동점골...강호 독일과 아쉬운 무승부

한국축구 신태용호 황희찬·손흥민·석현준 골 3대3

11일 '디펜딩 챔피언' 멕시코전서 결판...비겨도 8강

독일의 벽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결국 무승부에 그친 신태용호가 8강행 확정을 3차전으로 미뤘다.

사우바도르에서 브라질리아로 장소를 옮겨 11일(이하 한국시간) 치러지는 3차전 상대는 '디펜딩 챔피언' 멕시코다.

한국 대표팀은 8일 브라질 사우바도르 폰치 노바 경기장에서 열린 독일과 조별리그 C조 2차전에서 황희찬·손흥민·석현준이 골을 터뜨렸지만 세 골을 허용하면서 3-3 무승부를 기록했다.

한국은 후반 42분 터진 석현준의 득점으로 8강 진출을 눈앞에 뒀으나, 후반 추가시간 독일에 통한의 프리킥 골을 허용하며 아쉽게 비겼다.

1차전에서 독일과 2-2로 비긴 뒤 피지와의 2차전에서 5-1로 승리한 멕시코도 3차전에 모든 것을 다 걸어야 할 입장이다. 한국과 멕시코전에서는 이진 팀이 2승1무가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8강에 올라가게 된다.

패배한 팀은 1승1무1패로 8강에서 탈락할 것으로 보인다. 2무를 기록 중인 독일이

최약제인 피지와와의 경기를 남겨 놓고 있어 1승2무로 조별예선을 마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은 멕시코가 비길 경우에도 8강행이 가능하다. 한국과 멕시코가 비기면 피지를 제외한 C조의 3개 팀이 모두 1승2무로 동률이 되지만 한국이 골득실에서 앞서 있기 때문이다.

피지를 8-0으로 대파한 한국은 독일과 피지전 결과에 상관없이 최소 조 2위를 확보할 수 있다.

멕시코와의 역대전적은 2승4무1패로 앞서 있다. 그러나 멕시코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남자축구의 우승후보로 꼽히는 국가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도 한국이 조별리그에서 0-0으로 비겼지만, 멕시코는 결국 결승에 올라 브라질을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멕시코에선 피지전에서 4골을 뽑아낸 에릭 구티에레스(파추카)가 절정의 골 감각을 보인다. 그러나 와일드카드로 선발된 32세의 노장 오리베 페랄타(클럽 아메리카)도 위협적인 선수다.

페랄타는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도 와일드카드로 출전해 후배들과 함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2016 남미축구선수권대회(코파 아메리카)에서도 멕시코 대표팀 주전 공격수로 활약했다. 페랄타는 독일과의 1차전에서도 헤딩으로 선제골을 기록하면서 변치않은 기량을 과시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명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 유럽구단의 관심을 받는 측면 공격수 어빙 로사노(파추카)도 조심해야 할 선수로 꼽힌다.

대표팀은 독일과의 2차전에서 선발 출전에 맹활약한 손흥민(토트넘)의 활약이 반갑다.

와일드카드로 올림픽 무대를 밟은 손흥민은 "어리고 재능있는 선수들이 많은 대표팀에서 공을 잘 수 있어 행복하고 축구가 재미있다고 느낀다.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에서 독일과 맞붙을 수 있어 너무나 좋았지만 마지막 1분을 못 버틴 것이 아쉽다"며 "멕시코와의 3차전엔 무조건 이기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신태용호의 8강 진출 여부는 오는 11일 브라질리아 마네 가린샤 주경기장에서 가려진다. 대표팀은 8일 항공편으로 브라질리아로 이동한다.

/연합뉴스



“막내야 장하다” 7일(현지시간) 오후 브라질 사우바도르 폰치 노바 아레나에서 열린 리우올림픽 남자 축구 조별리그 C조 2차전 한국과 독일의 경기. 전반전 한국 황희찬(왼쪽 아래)이 골을 넣은 뒤 손흥민과 포옹하며 기뻐하고 있다. 대표팀 막내와 최고참, 숙소 룸메이트 사이인 황희찬과 손흥민은 이날 한국의 공격을 주도했다.

/연합뉴스

## 8년만에 재기...아줌마의 힘으로 동메달

여자역도 53kg급 윤진희

중선수 용상 실패로 3위

10일 남편과 '부부 메달' 기대

윤진희(30·경북개발공사)는 울고 웃다, 다시 울었다.

4위라고 생각하고 아쉬움에 울었고, 동메달 획득 소식에 웃었다. 올림픽 무대를 다시 밟기까지 기다린 8년을 떠올리며 다시 울었다.

윤진희는 8일(한국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리우 센트루 파발리온 2에서 열린 리우올림픽 여자 53kg급 결승에서 인상 88kg, 용상 111kg, 합계 199kg으로 3위를 기록했다. 인상에서 101kg으로 올림픽 기록을 세운 리아쥔(중국)이 용상에서 1, 2, 3차 시기를 모두 실패한 덕에 윤진희는 행운의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경기 뒤 만난 윤진희는 “하늘이 동메달을 주셨다”며 웃었다.

윤진희가 떠난 생애 두 번째 올림픽 메달이다. 윤진희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인상 94kg, 용상 119kg, 합계 213kg으로 은메달을 땀. 승승장구하던 윤진희



7일 오후(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리우센트루 역도 경기장에서 열린 여자역도 53kg급 A조 경기에서 한국의 윤진희가 인상 2차시기에서 힘껏 바벨을 들어 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의 역도 인생에 굴곡이 생긴 건 2012년부터였다. 역도가 갑자기 싫어졌고, 런던 올림픽이 열린 해인 2012년 초 은퇴를 선언했다. 곧바로 역도 대표팀 후배 원정식(26·고양시청)과 결혼한 윤진희는 2015년 현역으로 복귀했다.

윤진희가 고마워하는 사람은 남편 원정

식이다. 윤진희와 함께 '부부 역사'로 이번 올림픽에 나서는 원정식은 이날 경기장을 찾아 아내를 응원했다.

윤진희는 “남편이 이틀 뒤(10일)에 경기를 한다...”라며 “남편 덕에 다시 역도를 시작했고 두 번째 올림픽 메달을 얻었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연합뉴스

## “허탈하지만 다 실력이고 핑계죠”

유도 66kg급 안바울, 허절린 한판패로 은메달

“다 실력이고 핑계죠. 이겨냈어야 하는데, 변명밖에 안 되죠.”

안바울(남양주시청)이 ‘금빛 사냥’에 실패한 직후 생긴 충격에서 벗어난 듯한 발언이다. 결승 패배 후 경기장을 빠져나오자마자 복도에 주그리고 앉아 한참 동안 머리를 움켜쥐었다. 하지만 10여 분이 흐른 뒤 열린 시상식에서 목에 은메달을 걸고 만난 안바울은 180도 달라져 있었다. 환하게 웃는 모습이었다.

안바울은 “열심히 했는데 한순간에 저서 허탈했다”며 “(상대 선수의) 기술이 제대로 걸려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세계랭킹 1위 안바울은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남자 유도 66kg급 결승에서 ‘세계랭킹 26위’ 파비오 바실(이탈리아)에게 한판패를 당했다. 업어떨어뜨리기 에 허를 찔렸기 때문이다.

안바울은 “다 실력”이라면서 “다음에 내가 더 노력해서 그 선수를 이기겠다”며 미소 지었다.

가족 얘기가 나오자 잠시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는 “항상 응원해주신다. 최선을 다했

기 때문에 후회는 없다”라며 “4년 뒤 도쿄올림픽을 잘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저서 속상했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것”이라며 “올림픽은 축제이지 앓으냐. 즐기려고 마음먹었다”며 환한 표정을 지었다.

4강에서는 역대 전 적 2연패를 안긴 ‘천적’ 에비누마 마사시(일본·세계랭킹 6위)를 눌렀다.

안바울은 “최민호 코치님이 많이 알려주신 게 진짜 크게 작용한 것 같다”며 “그 선수와 나 모두 기술이 좋지만 잡기 부분은 내가 달렸는데, 잡기를 다르게 하니 경기 운영이 수월했다”고 설명했다.

에비누마와 대결하면서 왼쪽 팔꿈치를 다친 것은 악재였다. 인터뷰 도중에도 왼쪽 팔꿈치를 움켜쥐었다.

안바울은 “결승에서 (팔꿈치를) 신경 안 쓰려고 했지만 쓰이긴 했다”며 “왼쪽 업 어지기를 해야 하는데 팔꿈치를 다쳐서...”라고 말끝을 흐렸다.

하지만 곧바로 평정을 되찾은 듯 “다 핑계죠. 어떻게 보면 변명밖에 안 되죠. 이겨냈어야 하는데”라며 다시 밝은 표정으로 돌



7일 오후(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파크 카리오카 아레나2에서 열린 2016리우올림픽 남자유도 66kg급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안바울이 시상식에서 이탈리아 파비오 바실레의 금메달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아와 “도쿄올림픽에도 나가기 위해 더 열심히 하겠다. 내가 운동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 온라인 사전 상담 신청자 창업특전 제공 브랜드

MOMMYCOOK CAFE

수제버거&치킨

아놀지 프랜차이즈

숙박 프랜차이즈



프리미엄 웰빙피자



떡볶이 프랜차이즈



세계최대 여성전용 피트니스



키즈&맘스 카페

홈페이지에서 창업특전 확인해보세요!

..... 더욱 많은 창업아이템은 현장에서 확인!

주최 KFA 社團(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 광주 전남지회 法人 Korea Franchise Association Gwangju Jeollanam-do Branch

주관 제일좋은전람

후원 한국지역산업연구원 Korea Region Industry Institute

www.yesexpo.co.kr

문의 02)856-1402

## 2016 광주·전남

#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김대중컨벤션센터 Kimdaejung Convention Center

8.19(금)~21(일)

### 무료창업세미나 일정

|             | 8월 19일(금)                | 8월 20일(토)        | 8월 21일(일) |
|-------------|--------------------------|------------------|-----------|
| 13:30~14:20 | 점포마케팅전략                  | 푸드트럭창업?          | 하반기창업트렌드? |
| 14:30~15:00 | 사업설명회                    | 사업설명회            | 사업설명회     |
| 15:10~16:00 | 호남지역에 맞는 외식메뉴개발 전략과 성공사례 | 외식메뉴 트렌드변화와 성공사례 |           |

\*일부 변경될수있음